

“전통 금속공예 섬세함 · 예술성 만나요”

익산 보석박물관, 9월 25일까지 ‘타출기법의 대가 박해도의 이순신과 거북선’ 전시

보석도시 익산시가 박해도 명인의 작품을 통해 전통 금속공예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한다. 익산보석박물관은 오는 9월 25일까지 상설전시실 내 아트갤러리에서 ‘타출기법의 대가 박해도의 이순신과 거북선’ 전시를 개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익산보석박물관과 황금보석박물관 ‘석담’의 두 번째 교류전(展)으로 석담이 소장하고 있는 박해도 명인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통 금속공예 기법인 ‘타출’ 및 ‘세선’의 우수성과 가치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타출은 장과 망치로 얇은 금속을 두드려 표면에 원하는 모양을 표현하는 기술이고, 세선은 금속을 가는 선으로 꼬아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박해도 명인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널리 알리기 위해 35세부터 귀금속으로 거북선을 제작해 롯데 호텔, 조선소, 청와대 등에 선보이며 ‘거북선의 달인’으로 알려졌다.

2007년 세계명인 문화예술대축제 금속공예 부문에서 대한명인상을 수상하고, 2008년 서울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작품 활동과 함께 전통 금속공예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전시에서는 ‘석담 거북선’을 비롯해 백조 화병, 십장생 은항아리 등 박해도의 타출과 세선 기법으로 탄생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 41



박해도 명인 이순신 작품 사진

고 무거운 역대급 대작이며, 용머리와 도깨비 형상에서는 타출 기법을 확인할 수 있고 돛과 금으로 장식한 부분에서는 각각 세선 기법, 금부 기법이 사용됐다.

보석박물관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한국국제육진회)가 진행하는 설치한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로 스탬프’를 통해 ‘백의종군로 걷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에 57개의 스탬프 합이 설치돼 있고 그중 한 지점이 보석박물관(19번)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석박물관 누리집(jewelmuseu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3-4772)로 문의하면 된다.

보석박물관 관계자는 “전통 금속공예의 섬세한 기술 및 예술성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가족들과 함께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거북선을 관람하고 이순신 백의종군로 스탬프도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황금보석박물관 ‘석담’은 남양주시에 위치하며 2021년 설립됐다. 석담의 최규기 회장은 전통 기술이 담긴 작품을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7년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박해도 명인에게 아낌없이 재료를 지원하며 작품 제작에 불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이은정 작가 제1회 서양화전 ‘색을 담다’

전주 기림미술관서 31일까지 향아리 작품 27점 전시

열리지절에 이은정 유화작가가 ‘색을 담다’라는 주제로 전주 기림 미술관에서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생애 처음 작품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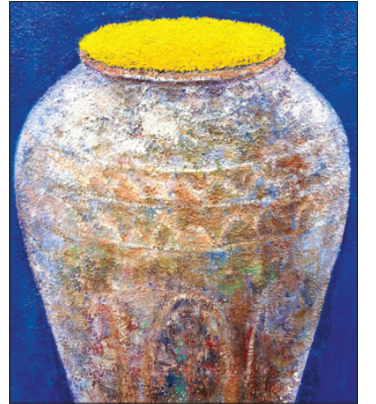
이 작가는 이번 27점의 향아리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고심했던 점이 색을 통한 내면의 진솔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작가는 마음속에 있는 색을 꺼내서 캔버스에 색을 담아 내면서 내 자신이 비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향아리에 색을 담으면서 여러 가지 형상과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걸 표현하면서 단순화시키면 남는 것은 색이었다. 이 작가는 “이번 작품전은 여러 형태의



이은정 작가



향아리에 색을 담아 보면서 색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회고한다. /김재훈 기자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 문화 공유

한국전통문화전당, 25~27일 ‘전통놀이 삼국지 시즌 2’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5~27일 3일간 전당 일원에서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문화축제 ‘전통놀이 삼국지 시즌 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 전주시, 중국 청두시, 일본 시즈오카현 학생들이 참여해 각각의 전통놀이와 다양한 전통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한·중·일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전주 한일고등학교와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18명, 시즈오카 시립고등학교에서 9명, 청두 수덕중학교 국제부에서 9명과 이들의 활동을 서포트할 9명의 대학생 멘토 등 모두 45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3일간 ‘동아시아 청소년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삼국의 전통놀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문화교류를 하게 된다.

주요 행사로는 △청소년 사절단 대면식 △한·중·일 16개 놀이미션을 수행하는 ‘삼국지 유람’ △전주한옥마을 일대 문화를 탐방하는 ‘전주문화여행’ △토너먼트식 놀이대회 ‘즐놀이 삼국지’ △전통문화체험 △서로의 도시를 소개하고 각각 청소년 문화를 교류하는 ‘슬기로운 우리생활’ △놀이공연 △청소년 사절단 해단식 등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에 ‘우리놀이 삼국지 유람’ 행사도 운영된다. 놀이 공연은 26일 오후 7시 전당 야외



광장에서 △K-pop 및 B-boy 댄스 공연 △중·일 비행기 국가대표 이은현 선수의 곡예비행 공연 △전주 기림놀이 등이 자유관람 형태로 진행된다. 또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27일 전당 일원에서 사전 신청한 30개팀(가족이 3회차에 걸쳐 곳곳에 배치된 삼국의 놀이 미션을 수행한다. 김도영 원장은 “동아시아 전통놀이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한·중·일 청소년들이 언어를 뛰어넘는 소통의 장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당 한복놀이팀(063-281-1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성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다문화·중도입국자 자녀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은 2024 광역-기초재단 문화예술교육 협력사업 일환으로 ‘물구나무 유튜브’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전북권 광역-기초문화재단이 협력해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교육 경험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고창가족센터와 협력해 지역 내 다문화 가족과 중도입국자 초중고 자녀 20명을 모집해 사진·영상으로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2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 예비교육을 시작으로 △아나운서 교육·체험 △단체 댄스 챌린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고, 11월에 고창 동시시네마에서 참여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성과물을 보고 나누는 성과공유회를 진행한다.

안종선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을 누구나 평등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디자인 예보,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지식 콜라보레이션’ 개최

디자인 예보(대표 김현정, 박세진)가 오는 25일 오후 7시 본사 사옥(전주시 완산구 서신전번로 43)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지식 콜라보레이션-커뮤니티 자본과 창조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시행하는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내 퍼블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 경제와 기술의 발달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상실,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한다.

참여 신청은 예보 미디어 레지던시 공식 인스타그램(@evo_media_official)을 통해서만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특히 이번 퍼블릭 프로그램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카카오) 본부장,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정환 크립톤 부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정정환 크립톤 부대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인간에게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자본’임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자본의 개념, △커뮤니티 자본을 만들어 내는 방법, △커뮤니티 자본이 지니는 미래가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김현정 대표는 “지역 예술가와 향유자, 그리고 도민 사이의 소통을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제일 적합한 강연자를 모셨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전북 예술계에 건강한 네트워크가 구축돼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세진 공동대표는 “올해 예보 미디어 레지던시는 지역과 지역, 예술가와 예술가, 그리고 예술가와 향유자를 잇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퍼블릭 프로그램은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식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예보 공식 누리집(www.designevogroup.com)이나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